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가득 찬 것은 소리 없이 조용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8일)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지혜로 여는 신축년 새해

코로나19의 힘겨움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다. 전 인류의 위기 속에서 밝은 신축년 새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가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 휴휴암 지혜관세음보살 뒤로 신축년을 밝히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동해용왕과 남순동자가 보살의 지혜를 기다린다. 붉은 해가 어둠을 밝히듯 신축년 새해는 지혜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우리의 힘겨운 시절을 밝혀주기를 합장으로 기원한다. **양양 휴휴암=박재완 기자**

언택트 신행 활성화… 선·명상으로 '치유'

2021년 신축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禪1200년 세미나·행사 다채
행정·신행 언택트 적극 활용
다양한 치유행사 잇달아 진행

신성민·노덕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혔다. 아직 코로나19라는 역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다양한 사업으로 대중과 함께하려 한다. 2021년 주목할 불교계 이슈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禪 2021년은 해동 초조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래한 지 12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올해 11월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구산선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추진한다.

한국선학회는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정도 스님(동국대 종학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참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도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2021년 문경 봉암사에서 '제4회 간화선 대법회'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영진, 일오) 추인 후 수좌복지회 등과 준비에 한창이다.

간화선 대법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제1회는 서울 조계사, 2회는 대구 동화사, 3회는 부산 흥법사에서 이미 봉행된 바 있다. 이번 제4회 간화선 대법회는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되며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간화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도 겸해 열린다. 이와 함께 '간화선 특별집중수행'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진행된다.

선원 수좌스님들의 대표모임인 선원수좌회는 선수행 대중화를 위해 재가불자 수행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지난해 7월 발족한 선주회다. 3000여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선주회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과 함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상원사에서 1박 2일 수련법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수좌스님들을 모시고 전국 순회법회를 비롯해 생활참선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오대산명상마을 옴뷔에서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 마련하는 간화선 집중수행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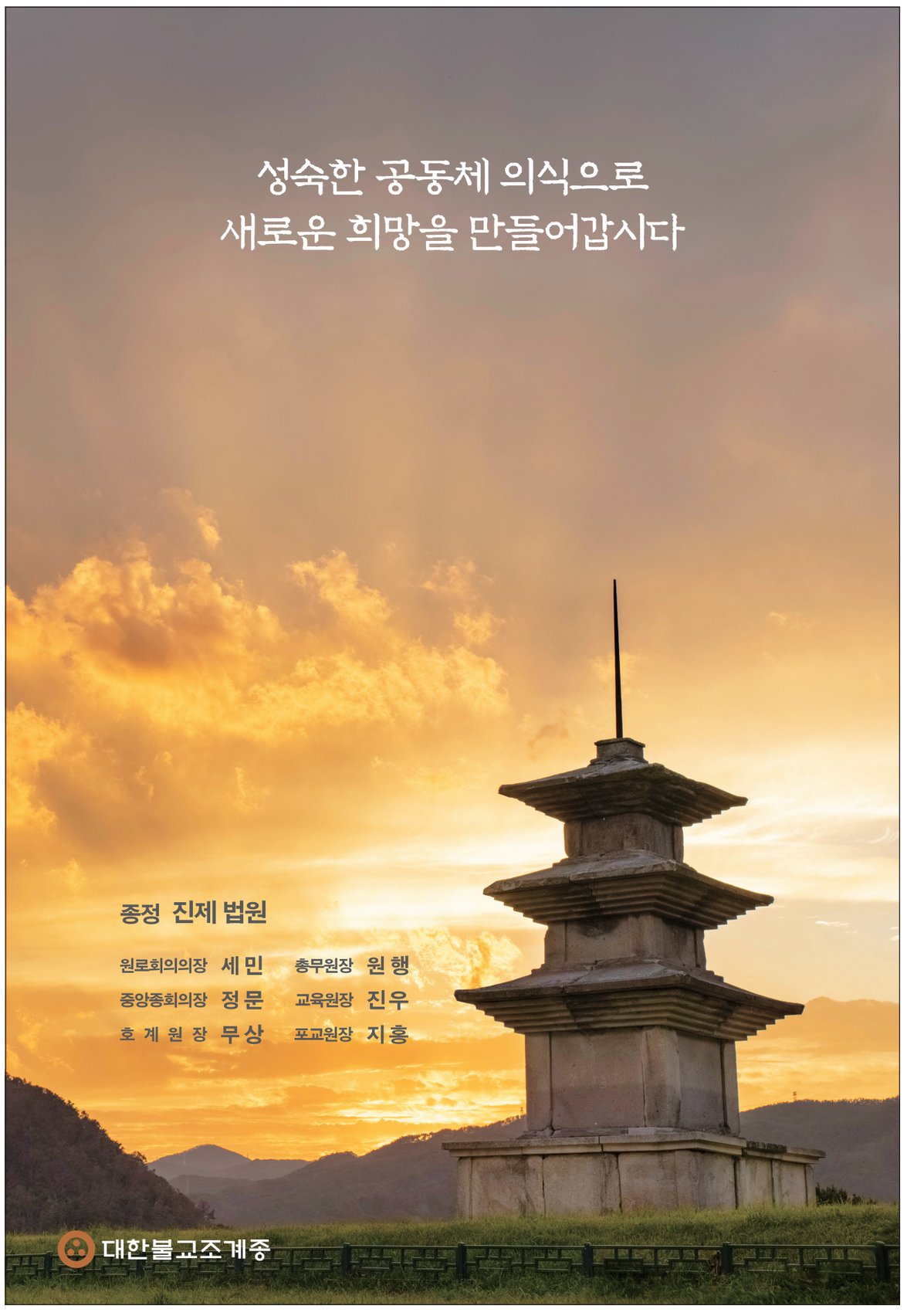
언택트 새해 언택트를 활용한 종무행정·포교신행 등의 변화는 가속화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새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불자들의 정보를 망라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언택트로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정보공유를 통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신도조직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도들간의 협력과 불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망 구성 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2020년 선보였던 언택트 합동수계법회 등을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3월 진행 예정인 신입생 동아리 설명회 등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진행한다.

일선 사찰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SNS포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2면에 계속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신문 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유튜브 채널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뉴미디어 확장에 나섭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합니다.



'Studio Gong' 채널 개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 현대불교신문도 불자와 국민들의 힐링을 위해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을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소소한 불교 상식부터 우리네 사는 이야기, 제주도 풍경 뮤직비디오, 세계불교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아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현대불교신문 PC·모바일 홈페이지가 1월 초순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메인기사 노출도를 높였고,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 콘텐츠들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버전도 함께 리뉴얼이 진행됐습니다.

카카오채널 등 SNS 활용

현대불교신문은 기사 게재·독자관리·후원홍보 등에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PqxllK)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yunbul)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